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의 강사
조세핀김
교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여 주실 것이다

- 야고보서 1:2-4 -

-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 '교실 속 자존감' 저자
- 현) 미국정신건강 상담사 & 대학교 내 폭력문제 전문가
- 현)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내일의 강사 **이종락** 목사

· 현)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다니엘기도회 이벤트



다니엘기도회 인증샷! 포토제닉

다니엘기도회 참석을 알 수 있는 인증샷을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다니엘기도회 간증

다니엘기도회 기간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원고를 받습니다.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grace@oryun.org

(이름,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다니엘기도회 에티켓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

- 1 자리 잡아주지 않기
- 2 가운데 앞좌석부터 앉기
- 3 음식을 반입하지 않기
- 4 휴대전화 전원은 꺼놓기
- 5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참여하기
- 6 안내위원에게 협조하기
- 7 대중교통 이용하기



오늘의 강사 책소개

조세핀김 저

1. 교실 속 자존감 비전과리더십
2.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 비비북스

*집회 후 1층 로비에서 사인회와 함께 강사님의 책을 판매합니다.



2017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주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일시>

11.1(수)~11.21(화)

오후 8:00~10:00

<장소>

영아부

지하 1층 영아부실

유아·유치부

제1교육관 지하 1층 사무엘홀

저학년(1~3학년)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고학년(4~6학년)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43:1)

2017년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룬 교회와 청년5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해입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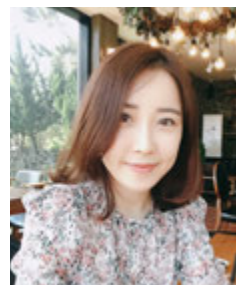
대학생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뜨거운 은혜의 순간도 잠시, 대학을 졸업하면서 식었습니다! 이후 세상과 교회에 한발씩 걸친 채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무늬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인 결혼을 고민하던 시기에, 꺼져 가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몰랐던 제 삶에 찾아와 주셨는데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진 채 계속 살아가는 게 맞나요? 제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룬 교회와 청년5부 공동체를 붙여 주셨고,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읽게 하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되면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도는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마6:33)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저에게 목사님의 권유로 청년부 리더를 하게 되었고, 의료 선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다니엘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바쁜 일정으로 몸이 많이 지쳐 있던 가운데 10월27일 금요일 새벽에 끌려 나오듯 나왔습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벅차 올랐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방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모함도 없이 나온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방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부족함을 채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내가 꿈꾸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학부 시절 재밌는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이번 다니엘기도회의 하루하루의 말씀들은 저의 궁금증에 해답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던 마음들이 그분들의 삶으로 증거가 되었기에 확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이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냐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의 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세리 | 청년 5부





은혜의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하늘에서 찾아온 미소천사, 건이의 웃음을 밝혀주세요”



유리건

웃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들려주는 작은 소리에도 환하게 미소 짓는 건이(14)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심각한 경기를 일으키며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오랜 시간 치료에 힘썼지만, 상태가 점차 나빠지면서 영아성 뇌성마비와 발달장애, 뇌병변 장애1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력마저 잃게 되었고, 유일한 감각 기관으로 청각만이 남아 있습니다.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건이 곁에는 다정한 아빠와 엄마가 꼭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건이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시에는 무호흡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잦은 경기를 일으키기도 하는 건이로 인해 집에는 각종 의료기기와 의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위급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건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나이로 성장한 건이는 키가 부쩍 컸지만, 움직임이 없어 근육량이 적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자라나는 뼈들을 받쳐주지 못하면서 척추를 비롯한 몸 구석구석에 변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고통으로 가득했던 건이에게 몸의 연약함은 나아지기보다 자꾸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건이의 미소 한 번에 행복을 느끼는 아빠와 엄마로 인해

하루하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생명이지만,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날만큼 미소 지을 수 있는 건이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이가 느끼는 이 행복한 미소를 우리가 함께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 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륜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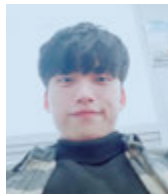
오륜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저는 대학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취업을 먼저 선택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첫 사회생활이고 아직은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 힘들고 지침에 억눌려서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는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사회생활이 겪어보니 꼭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들자 저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기도회가 시작되었고, 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조명환 박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심으로 지금의 박사님을 만들었듯이 나에게 대학보다 직장을 먼저 주셔서 남들과 순서는 다르지만 나에게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다니엘기도회 강사님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간증을 할 수 있는 간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일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욱 더 경건한 삶을 살며 믿음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더욱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바닥까지 떨어졌던 믿음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붙잡아 이 자리에 나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성만 | 고등부(고3)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6년 정도 생활을 하고 몇 년 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니까, 또 엄마가 가라고 하셔서 교회를 갔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륜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8시중고등부 찬양팀에 들어왔습니다. 찬양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캠프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점차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팀 학생들은 다니엘기도회에 필수 참석이었기 때문에 참석했지만,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는 순간, 강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려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 강사님은 바로 이진남 집사님이었습니다. 주제는 YOLO you only live once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기도회에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매일 다음 날에 있을 집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눈병이 생겨서 다니엘기도회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가지 않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팀 이유나 선생님을 통해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집회에 참석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의 눈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정말 저의 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엄마도 제 눈을 보시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면 꼭 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눈병을 고쳐주신 사건이지만, 제게는 앞으로 평생토록 기억하게 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이재원 | 8시 중고등부(중1)



P 주차 안내

-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셔틀버스는 금요기도회 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 교회 종직자들은 교회 외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고 운동장 주차차량은 꼭! 당일 출차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1 옥외주차장 2

보성고등학교 주차장 3

